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책 '문흥초 식물도감'

교육의향

조재호
교사



“수업 중에 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나요? 우리 아이 열등감 느끼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받아쓰기 테스트 하지 마세요!” “틀린 것 빗금 치지 마세요. 우리 아이 기분이 나빠져요!”

얼마전 교원노조 윤미숙 선생님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꺼낸 ‘민원’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교사들에게 이런 민원은 별로 놀랍지 않지요.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논란이 된 것 같아요. 작년 9월 4일, 공교육의 멈춤의 날이었습니다. 별로 바뀐 것이 없다고 여기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저는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아이가 사회를 닮듯, 학부모도 우리 사회를 닮기 때문입니다.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읽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를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그냥 짜증만 내는 사회지요. 분노와 짜증은 다른 것입니다. 짜증은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투덜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버스가 늦게 오냐, 왜 인터넷이 이렇게 느리냐, 심지

어 왜 비가 오냐 등등. 어쩔 수 없는 일에도 그저 투덜대는 겁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대상(만만한 대상)을 찾아서 칭얼대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분노는 “중단시키는 힘”이며, “현재에 대해 총체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대개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장, 그 전체를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하는 ‘말’에 부모는 즉각 ‘반응’하지요. 마치 컴퓨터 게임의 충돌에 이끌려 밤을 세우는 중2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너무 바쁩니다. 학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경제적 문제입니다. 성과를 압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사회구성원들을 몰아댁니다. 그래서 과잉행동, 과잉긍정 속에서 누구도 ‘충동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체를 제대로 자세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식마저 제대로 볼 능력을 상실시키는 사회입니다.

니체란 철학자는 “교육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가지 과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는 법, 생각하는 법, 말하고 쓰는 법이라고 했다 합니다. 학교에서 ‘말하고 쓰는 법’은 배운 듯 한데, ‘보는 법’을 배운 적이 있던가요? 전 ‘보는 법의 교육’이란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2019년 문흥초에서 근무할 때 함께 했던 동료 선생님이 떠올랐습니

다. 그분은 작은 체구, 말이 없으셨고, 조용히 미소를 짓던 선생님 이셨지요. 초4학년 과학 과목에 교육과정상 식물의 구조가 처음 나옵니다. 직접 강남콩을 기르며 식물의 ‘한살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흥초 4학년들은 과학시간이면, 교실 바깥으로 나갑니다. 모듬별로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교에 있는 식물을 찾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식물을 ‘찾고’, ‘바라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손으로 그것을 그려봅니다. 그 과정에서 식물의 이름을 알고, 구조들(꽃, 줄기, 잎)을 파악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작품’을 피드백 하십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 책을 한권 출간하셨습니다. ‘문흥초등학교 식물도감’, 지은이는 문흥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책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지, 그 선생님, 감성은 선생님이지 정말 훌륭하셨다, 그분의 교육방법이 훌륭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보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분노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 때문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이전 교사들도 문흥초 어린이들이 식물을 바라보기 위해 멈추었듯, 잡동사니, 중동적인 교육 정책들에 대해 ‘멈춤’을 선언하고,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만 보고 조용히 그려내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社說

대통령과 여야, 현안해결 약속 지켜가야

정치권 중재와 정부개입 절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등이 광주에서 잇따라 열렸다. 지역의 숙원인 인공지능(AI)집적단지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칭 ‘광천상무선’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의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광주시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AI영재고 개교와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부지 조성, 복합쇼핑몰 건설 구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지원도 언급했다.

하루 뒤인 6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진숙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광주 지역회의’도 열렸다. 강 시장은 이

날 “광주의 인공지능 실증밸리 사업 예산 지원과 입법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고,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지원 과제들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민주당 광주시당이 주최한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도 주목 받았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위해 무안지역에 ‘소통방’이 문을 연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석 이후 광주-전남 연석회의를 추진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지역 현안해결에 대통령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 숙원 해결책은 국비 지원 없인 불가능하다. 이미 4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시가 ‘AI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 예타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정치권의 중재와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 광주는 경제 기반이 열악하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없인 광주의 미래가 밝지 않다. 광주가 균형발전을 꾀하려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약속이 말로만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정한 경쟁으로 당당하게 선거 치르길

민주·혁신당 재선거 격돌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양 지역에서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오랫동안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고 민주당 또한 호남을 동력 삼아 도약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변화다. 양 당이 설정했던 ‘협력과 경쟁 관계’처럼 이번 선거가 공정한 경쟁으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8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이미 곡성 월셋집을 계약했고 영광 월셋집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이르면 추석을 앞둔 13일부터 호남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생활하며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석 명절을 호남에서 보낼 예정”이라며 “현장 최고위원회도 호남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정감사도 호남과 서울을 오가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5선으로 민주당 광주-전남 최다선인 박지원 의원이 조 대표의 ‘호남 월 세살이’를 의식해서 인지 곡성과 영광에 상주하며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했

다. 언젠가부터 호남은 민주당의 ‘변방’이거나 ‘안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호남정치의 몰락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당당함도 사라졌다. 민주당 정권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은 단순한 선거를 넘어 주민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 호남의 미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다. 조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썩은 물은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게 옳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네거티브 선거의 유혹을 떨치고 범야권 절체절명의 목표인 정권 교체를 위해 공정하고 당당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혁신당의 선전은 박지원 의원의 평가처럼 진보의 분화가 아닌 진보의 확장이다. 경쟁과 다양성으로 지역민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의미도 크다. 유권자들도 ‘내편 내편’을 떠나 후보의 자질과 능력, 비전, 도덕성 등을 중심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유권자의 관심이 정치를 바꾼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을 방문해 개발, 생산 중인 장비들을 점검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서석대

지난 7월부터 서울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는 문화에 국경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18세기 절대왕정 시대 프랑스 궁궐의 이야기를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마리 앙투아네트-어느 평범한 여자의 초상’이라는 소설로 엮었다.

이를 다시 일본 만화가 이케다 리요코가 1972년 실제 역사에 창작 인물들을 등장시키며 전설적인 작품 ‘베르사유의 장미’가 탄생한다. MZ세대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80년대 초중반생에게까지는 화려한 궁정문화와 프랑스 혁명을 알린 기수 역할을 했다. 2012년 영화 레미제라블 이전까지 명실상부하게 프랑스혁명의 대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연극과 영화, 뮤지컬로 재해석된 베르사유의 장미가 이번에는 한국에 의해 창작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로 초연을 했다. 프랑스의 문화가 오스트리아와 일본을 거쳐 한국의 손에 재창조되기까지 10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변치 않았다. 격동의 프랑스 혁명의 시대, 여성으로서 주어진 삶이 아닌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간 여성의 이야기다.

‘레이디 오스칼’은 남자 이름인 오스칼에 숙녀를 뜻하는 ‘레이디’가 붙은 어색한 단어다. 오스칼의 어원은 ‘신의 창’이라고 하니 우리말로 치환하자면 ‘신창수 양’이라고



느껴질 법하다. 남성의 이름을 한 여성 오스칼은 남성들의 세제인 군대에서 남성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장 신뢰받는 근위대장이었고 아버지에게는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명예는 자신을 감싼 비단옷에 불과했음을 오스칼은 스스로 깨닫고 내려놓는다.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의 영광을 위해 희생된 민초들의 삶을 목격한 오스칼은 스스로 하나의 금빛 토피바퀴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시대의 한계임이 분명하고 그의 잘못도 아닐 테지만 오스칼은 금빛 자수가 새겨진 근위 제복을 벗고 허름한 위병,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복을 입는다.

남성에 못지 않은 실력에 더해 세상의 부조리함과 파멸을 외면 않고 가장 먼저 나서는 여전사의 이미지가 이렇게 완성됐지만, 오스칼도 그저 한 명의 여성이었다. 스스로도 시대의 희생자였지만 그를 외면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한 오스칼은 20세기 후반의 가장 대중적인 페미니즘 표상이라고도 불린다. 주어진 삶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는 어쩌면 시대와 국가, 성별을 초월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반세기가 지나 한국의 뮤지컬이 된 일본 만화의 프랑스 여성이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다.

조선인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nilbo.com m.jnilbo.com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